



마음이라는 기술

말보다 다정한 눈길
움직임보다 따뜻한 마음결을

책으로 먼저 배웠습니다

환자가 힘겨운 순간마다
그 한 줄을 꺼내어
마음으로 도와주려 합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몸보다 마음을 먼저 배우려 합니다

돌봄은 손끝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걸

저는 지금,
마음이라는 기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논어 <공자>

작품 설명

이 작품은 유교 고전 논어에 나오는 온화, 예절이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을 돌보는 자세는 기술보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만든 시화이다.

그림 속 인물은 간호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실제 강동대 실습수업에서 사용하는 분홍색 실습복과 간호학 교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책을 펼치고 마음을 새기듯 눈을 감은 모습은 지식뿐 아니라 마음으로 간호를 배우는 자세를 표현하고자 했다.

배경의 분홍빛 하트는 돌봄의 따뜻한 감정을 상징하며, 그 안에 자리한 학생의 조용한 표정은 논어가 말하는 온화한 인품과 정중한 예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시는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환자의 아픔 앞에서 책 속 한 줄을 마음으로 떠올리며 도와주려는 다짐을 담고 있다. 마지막 문장 “저는 지금, 마음이라는 기술을 배우는 중입니다.”는 간호의 본질을 기술보다 마음이라는 믿음, 기르고 아직은 서툴지만 따뜻하게 성장해가고 싶은 학생의 마음을 담은 글귀이다.